

<2016년 8월 21일 주일말씀>

섬세히 해라. 할 때 해라 묶어 주고 껴매 줘라

본 문 히브리서 4장 12-13절

할렐루야!

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과
성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.

◎ 오늘은 ‘섬세히 해라. 할 때 해라. 묶어 주고 껴매 줘라.’

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겠습니다.

◎ 이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행하면

안 될 것도 되고, 불가능한 것도 하고,

많은 것을 얻고, 밭에 감춰진 보화도 얻게 됩니다.

◎ 생각해 보면 ‘섬세하게 할 것’도 많고 ‘할 때 할 것’도 많습니다.

또 십리사 안에서 ‘묶어 주고 껴매 줄 것’도 많습니다.

주제 한마디만 들어도 이 말씀이

인생을 사는 데 얼마나 필요한 말씀인지 알 것입니다.

모두 믿고 깨닫고 행하도록

지금부터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겠습니다.

<말씀 시작>

- ◆ 새벽꿈에 내 혼이 어떤 한 사람을 따라갔습니다.

따라가 보니, 그곳은 ‘많은 공장이 있는 지역’ 이었습니다.

그중의 한 공장에 들어갔는데,

넓은 공장 안에서 팀마다 열 명씩 모여서 일하고 있었습니다.

옆에서 기계가 돌아가고 있었고, 무엇을 만들고 있었습니다.

자세히 보니 ‘작은 바늘’ 을 종류별로 만들고 있었습니다.

그곳은 ‘바늘을 만드는 공장’ 이었습니다.

<예리한 기계>로 ‘바늘’ 을 만들어 내는데,

여러 단계를 거쳐서 ‘정교하고 섬세하게’ 찍어 냈습니다.

그리고 ‘여러 사람들의 손’ 을 거쳐서 완성되었습니다.

- ◆ ‘<바늘 하나>를 만드는 데도

정말 <섬세한 과정>을 거쳐서 만드는구나.

<예리하고 섬세한 기계>도 여러 개 있어야 되고,

<사람>도 많이 필요하구나.

<섬세하게> 해야 <섬세한 것>을 만들고,

<섬세하게> 해야 <섬세하고 예리하게> 쓰여지는구나.’ 했습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그다음 공장으로 갔습니다.

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
제품들이 들어 있는 박스들을 한곳에 쌓아 놔습니다.

그 박스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안 보였습니다.

- ◆ 그곳을 쳐다보고 있는데,
두 사람이 서로 마음이 안 맞아 다투고 있었습니다.

그 공장의 사장과 여직원이었습니다.

- ◆ 사장은 <박스 개수를 기록한 것>과 <쌓아 놓은 박스들>을 보며,
여직원에게 “<박스 개수>가 안 맞다.” 했습니다.

여직원은 “틀림없는데요.” 했습니다.

사장은 “아니잖아. 두 박스가 비는데 어떻게 된 거야?” 했습니다.

여직원은 자신만만하게 웃으면서

사장이 말하는데도 자기 자리에 앉아서 눈만 치켜뜨고 말하기를

“제가 까놓고 말하지만, 두 박스를 제가 떼먹했습니까?

제가 두 박스를 다른 데 팔아먹했습니까?” 했습니다.

사장은

“두 박스가 비니까 말하는 거 아니냐.

네가 안 떼먹었다고만 하지 말고,

섬세하게 보고 맞게 기록하라고 하는 말이다.” 했습니다.

- ◆ 그때 선생은 ‘바늘 공장에서 봤던 것’ 이 생각났습니다.
<섬세하게> 하지 못해서 서로 심정 상하고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.

- ◆ 공장에서 다시 파악하니,

여직원이 박스 개수를 기록할 때 〈섬세하게〉 하지 못하여
기록 착오를 하여 ‘두 개’ 를 더 기록한 것이었습니다.

여직원이 떼먹은 것은 아니지만,
결국 여직원 본인이 잘못했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.

- ◆ 한 번 기록 착오를 하면,
계속해서 착오가 일어나니 서로 싸우게 됩니다.

“내가 물건 안 떼먹었다. 안 팔아먹었다.” 하지만 말고,
섬세하게 해야 됩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그 장면이 지나고 거리로 나오니,
사람들이 서로 언성을 높여 다투고 있었습니다.

길을 걸을 때 주변을 〈섬세하게〉 보고 걷지 못하여
서로 부딪혀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.

- ◆ 그것을 보면서
‘저 사람은 오늘날 저런 것이 아니다.

평소에 〈섬세한 하나님의 말씀〉을 듣지 않고 인생 살다가
가는 곳마다 〈섬세하게〉 하지 못해서 문제가 일어난다.’

깨달았습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그러다 공원이 나왔습니다.

공원에 몇 사람이 있었는데
처음에는 잘 있다가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.

무슨 일인지 자세히 보니,
서로 ‘할 말, 못 할 말’ 을 구분하지 못하고
<섬세하게> 하지 않아서 심정 상해 다툼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.

- ◆ 섬세하게 확인하지 않고 하다가 착오가 생기고,
그로 인해 상대가 오해하게 되고,
자기는 잘못된 것이 없는데 상대가 오해하니 싫고,
그러니까 자꾸 다투고 싸우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.

<정교하고 섬세하게> 하지 못하여 다투고, 싸우고,
손해도 보고, 건물도 무너지고, 다리도 무너지고,
전쟁도 일어나고, 목적인 것도 깨지게 됩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이 꿈을 꾸고 기도하는데 깨달아졌습니다.

‘<생명 관리>도 섬세하게,
<모든 일>도 섬세하게 해야 된다.’ 하는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.

- ◆ <바늘 하나> 만드는 것도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.

예리하고 섬세한 기계와 여러 사람을 통해
섬세하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만듭니다.

- ◆ 생명도 잘 관리하여 잘되게 하려면

<섬세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역사>가 있어야 하며,
<섬세한 관리자>이 필요합니다.

- ◆ 바늘은 ‘섬세하게’ 만들었으니 ‘섬세하게’ 쓰여집니다.

성령님은

“바늘을 만들듯이 모든 일을 섬세하게 해야 된다.” 하셨습니다.

- ◆ 누구나 생활하면서 <섬세하게 하는 것>이 빠지면 안 됩니다.

작품을 만드는 데도, 아름다움을 만드는 데도,

생명을 온전히 만드는 데도, 할 일을 하는 데도

모든 존재 세계에서 ‘섬세함’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.

- ◆ <섬세하게> 하면, ‘성공’ 합니다.

- ◆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<전지전능하신 능력 중의 하나>가 곧 **‘섬세한 능력’**입니다.

고로 삼위일체는 ‘섬세한 자’를 택하여

시대마다 **선지자**로 삼고, **중심인물**로 삼고, **왕**으로 삼고,

메시아로 삼아 인생들에게 보내셨습니다.

그리고 ‘그들을 통해’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셨습니다.

- ◆ <인간의 뇌, 눈, 코, 입, 귀 등 각 지체의 기능>을 보세요.
하나님이 ‘섬세하게 창조’하여 ‘섬세하게 기능’을 합니다.

<눈> 하나만 해도 참 섬세합니다.

<구조>도 섬세하고 <기능>도 섬세합니다.

고로 막 다루면 안 됩니다. 섬세하게 다뤄야 됩니다.

◆ 사람뿐 아니라

<이 시대에 최고로 발달된 과학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>을 보세요.

비행기, 우주선, 각종 전자 기계를 보세요.

최고의 ‘섬세함’을 가졌습니다.

◆ 섬세하지 않으면, <의학>도 발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.

환자를 살리려면 ‘섬세한 진찰과 진료’가 필수입니다.

환자를 섬세하게 진찰하지 않으면

병을 발견하지 못해서 병을 키우게 되고, 결국 죽기까지 합니다.

병을 발견했어도 섬세하게 치료하지 않으면

치료를 제대로 못 하여 병이 커지고, 결국 죽기까지 합니다.

◆ 웅장한 건물도 <크고 웅장한 것>만 생각하고

<섬세함>을 무시하고 하면, 바로 무너집니다.

◆ 월명동 돌 조경을 보세요.

정말 큰 바위로 웅장하게 쌓았습니다.

그러나 섬세하게 하지 못했을 때는 모두 무너졌습니다.

아무리 기도하며 쌓았어도 섬세하게 쌓지 못하여

그 큰 바위를 1cm 기울어지게 쌓았을 때는,

결국 며칠 있다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.

어떤 바위는 3mm만 기울어도 넘어가기에

쌓을 때 최대한 섬세하게 보고 쌓았습니다.

또한 전체 균형을 잡아야 무너지지 않으니,
아주 섬세하게 돌을 세우고 쌓았습니다.

- ◆ 사람도 섬세하게 하지 않으면,
<인생길 목적지>까지 못 가고 넘어집니다.

인생도 신앙도 ‘웅장’ 하기도 해야 하지만,
웅장한 만큼 ‘섬세함’ 이 절대적입니다!

그래야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굳건하며,
그만큼 빛을 발하게 됩니다.

- ◆ <휴거의 길>도 그러합니다.

<휴거>는 ‘인생 최고의 목적’이며,
‘성경을 이루는 것’이며,
‘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’ 입니다.

고로 그만큼 섬세하게 배우고 깨닫고 행해야 됩니다.

또 휴거되어 <차원>을 높이는 것은 더 섬세해야 됩니다.

휴거됐어도 ‘700선’ 까지 가야
<삼위일체의 완전한 사랑의 대상체>가 되어
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.

고로 이때부터는 더 섬세하게 보고 듣고 깨닫고 행해야 됩니다.

<휴거 차원을 높이는 데> 있어서 ‘섬세함’ 은 절대적입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시계를 보세요. 얼마나 섬세한지 봐요.
순간 ‘초’ 까지 재계 만들었습니다.
- ◆ 자를 보세요. 정말 섬세합니다.
1mm는 눈으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.
그런데 ‘1mm’ 까지 재계 만들었습니다.
- ◆ 저울을 보세요. 정말 섬세합니다.
가벼운 ‘머리카락’ 까지 무게를 달도록 섬세하게 만들었습니다.
- ◆ 스마트폰을 봐요.
얼마나 섬세하고 정교하게 만들었습니까?
그러니 스마트폰 하나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.
- ◆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

“내가 창조한 우주 만물을 보아라. 지구를 보아라.

세밀하게 만들지 못한 것들은 하나도 존재하지 못하니,
정말 정교하고 섬세하게 창조했다.” 하셨습니다.

- ◆ 그 말이 정말 맞습니다!

얼마나 정교하고 섬세한지
조금이라도 법칙에 벗어나면 지구도 돌 수 없고,
우주 만물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.

너무나 정교하고 섬세해서
인간은 ‘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’ 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.

다만 ‘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’을 가지고,
<제2의 창조>를 할 뿐입니다.

- ◆ 하나님이 ‘최고로 정교하고 섬세하게 창조한 존재’는 곧 <인간>입니다.

<인간의 각 지체>도 정말 정교하고 섬세하며,
그중에서도 <뇌>가 가장 정교하고 섬세합니다.

고로 인간은 보고, 듣고, 말하고, 만지고,
느끼고, 생각하고, 깨닫고, 하늘 계시를 받고,
영감과 직감과 감동을 받는 등 정교하고 섬세하게 행하면서
<자기 영>까지 구원하여 영원히 살게 합니다.

- ◆ 성령님은 말씀하셨습니다.

“모두 ‘정교하게 섬세하게’ 행해라.

그래야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다.” 하셨습니다.

- ◆ 지붕을 고칠 때도 섬세하게 안 고치면, 비 올 때 또 비가 썩니다.

99% 고쳤어도 1%까지 섬세하게 못 고치면,
그 1%에서 비가 새서 고친 곳으로 스며들어서 비가 떨어집니다.

그러니 “고쳐도 비가 새네.” 하면서 포기합니다.

어떤 사람은 섬세하게 하지 못하여 계속 비가 새니,
10년 동안 비가 올 때마다 ‘지붕에서 새는 물’을
바가지에 받아 가면서 살았습니다.

- ◆ 자기 모순과 생각과 행실을 고칠 때도 그러합니다.

고칠 때 <섬세하게> 해야

그 모순이 <온전한 생각과 행실>까지 새어 들어오지 않습니다.

섬세하게 안 하면, 결국 ‘고친 것’ 까지 영향을 받고

‘왜 고쳤는데도 나는 매일 이러냐?’ 하며 포기합니다.

<섬세함>이 ‘답’ 입니다.

◆ 전능하신 하나님께서

<인간>을 ‘가장 정교하고 세밀하게 창조’ 하셨으니

누구든지 ‘정교하고 섬세하게 할 수 있는 자료’ 를 가지고 있고,

누구든지 ‘정신일도’ 해서 하면 ‘섬세하게’ 할 수 있습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인생을 사는 것도, 성경을 푸는 것도, 종교를 선택하는 것도,
땅을 사는 것도, 공사하는 것도, 말하는 것도, 건강도
각종 일을 할 때마다 <섬세하게> 하지 않으면
각종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.

◆ 반면 <섬세하게> 하면

안 될 것도 되고,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하게 되고,
순간 그냥 지나칠 것도 섬세히 보고 보화를 찾게 되고,
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.

◆ 지난날을 돌아보니,

<섬세하게> 안 하니 그만큼 살피지 못해서

문제들이 닥치고 사고가 나고 죽기까지 한 일이 많습니다.

〈섬세하게〉 안 해서 문제도 못 풀고 고생도 했습니다.

〈섬세하게〉 했더라면

쉽게 했을 것이고, 찾던 자도 찾았을 것이고,
사고도 안 났을 것이고, 문제도 적게 일어났을 것입니다.

- ◆ 어떤 일을 당해도, 힘들어도

섬세하게 하고, 할 때 한 것들만 이상적으로 이루어져 성공했습니다.

- ◆ 이 세상의 개인, 가정, 회사, 각종 단체, 국가에서

일어난 일들을 보면 〈섬세하게〉 안 해서

사고도 나고 실패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

고로 ‘한국의 세월호 침몰 사고’ 처럼

한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습니다.

그동안 〈섬세하게〉 안 해서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.

- ◆ 〈섬세하게〉 안 하면 ‘작품’ 도 못 만듭니다.

〈섬세하게〉 안 하면 ‘사람 얼굴’ 을 그려도 안 닮아 있습니다.

한낱 작품을 만드는 것도, 사람 얼굴을 그리는 것도

섬세하게 해야 제대로 되는데

〈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역사〉를 맞는 것은 어떻겠습니까?

- ◆ 정말 깨어 기도하고 진실로 행하며 〈섬세하게〉 했다면,

성경도 바로 풀어 ‘2000년 동안 기다린 역사’ 를 맞고

소원을 이루고 주와 같이 잔치했을 것입니다.

그러나 건성으로 형식으로 하다가

‘기다리다가 끝나는 신세’가 되었습니다.

- ◆ 그들은 ‘2000년 동안 기다린 역사’를 맞지 못하고
나이가 먹었습니다.

지금 그들에게 “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졌다.” 하고,
섬세하게 하나하나 말해 주면 배척합니다.

혹은 “이제 나이 다 들어서 알았으니 억울하다.” 합니다.

지난 과거는 영적으로 죽어 살고 소경으로 살았던 것입니다.
실패한 것입니다.

남은 인생 가지고 살아야 하니,
제때 일찍 와서 한 사람만 하겠습니까?

하나님을 믿어도 <섬세하게> 배우고 행하며 믿어야 성공합니다.
그냥 믿으면,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.
믿고 살아도 영적 소경으로 살게 됩니다.

- ◆ 하나님이 ‘천지를 창조’ 하시고 <창조한 목적>을 이루기까지
6000년 동안 참으로 정교하고 섬세하게 행하여 이루셨습니다.

- ◆ <섬세하지> 않으면,
밭에 감춰진 보화를 100년, 200년씩 밭로 밟고 다녀도 못 찾습니다.

<섬세한 자>만 보화를 찾고 기뻐하며 삽니다.

- ◆ <섬세한 자>가 ‘생명도 잘 관리’ 하고 ‘큰일’도 합니다.
그렇지 않으면 ‘생명’도 놓치고 ‘큰일’도 망칩니다.

- ◆ 이 세상을 보세요.

<새로운 것>을 발명해서 1000년 앞질러 가게 됐습니다.

모두 <섬세하게> 보고 연구하고 행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.

- ◆ <섬세하지> 않으면

계속 덩벙거리고 건성으로 하다가 일을 저지르고,
문제를 발생시키고,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.

고로 ‘될 것’도 안 됩니다. 서로 부딪힙니다.

자기가 ‘자기 고생’을 시킵니다.

- ◆ 어떤 것을 섬세하게 해야 되는지, 각 분야별로 너무 많습니다.

각자 ‘자기 센터, 자기 위치’에서

100가지, 1000가지, 10000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.

<전환>

- ◆ 또 한 가지는, 일을 할 때는 미루거나 중단하지 말고
<할 때 해야> 된다는 것입니다.

- ◆ <할 때> 안 하고 미루면, 결국 그 일을 못 합니다.

대부분 어떤 일을 <할 때> 힘드니까 미루고 중단하게 됩니다.

그러나 힘들어도 <할 때 하면>

무엇을 하든지 이상적이고, 성공하고, 꿈을 이루고,

그리함으로 운명이 뒤바뀝니다.

- ◆ 한창 시동이 걸려서 열 내면서 하고 있는데 조금 힘들다고

“다음에 해야지. 더 힘을 내서 다음에 해야지.” 하면,
다시 일어나고, 시동 걸리고, 기뻐하고, 흥분하고,
일이 손에 잡힐 때까지 안 됩니다.

너무 힘들면 잠깐 쉬면서, 할 때 해 버려야 됩니다.

◆ 설교할 때도 보세요.

할 때 심정을 다해

그 말씀 내용에 맞춰 제스처를 하고 강약을 줘야지,
다음으로 미루면 안 됩니다.

◆ 성령집회 할 때도 그렇지요?

열 내서 할 때 말씀을 더욱 깊이 꽃으면서

그때 회개시키고, 깨닫게 하고, 성령과 주를 부르게 합니다.

다음으로 미루면, 그날 성령의 역사는 끝나서 안 됩니다.

◆ 강의할 때도 그러합니다.

강의할 때 모르는 것을 알게 하고,

회개도 시키고, 감사하게 하고, 주를 깨닫게 해야지,

미루고 끝나고 하면 되겠습니까?

강의할 때 이렇게 하는 자가 잘하는 자입니다.

막 밀어붙이며 해도 안 됩니다.

강의할 때 그 사람의 성향도 파악하고

모르는 것을 그 사람에 맞게 풀어 주며 알게 해 주면서,

성경도, 주도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.

◆ 떡 본 김에 잔치하는 것입니다.

물 본 김에 수영하는 것입니다.

이와 같이 할 때 해야 됩니다.

◆ 장사도 할 때 해야지, 밤으로 미루면 누가 사러 옵니까?

노래도 쪽 뽑을 때 쪽 뽑으면서 해야지,

쪽 뽑아서 불러야 할 소절이 지나고 하면 되겠습니까?

◆ 병을 발견했을 때도 <치료할 때> 해야지,

힘들다고 미루고 안 하면

결국 병이 번지고 커져 죽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.

◆ 할 때 안 하면

시간이 가서 환경이 바뀌게 되고, 그 때는 안 해집니다.

◆ 두 사람이 여름철에 더워서 수영을 하러 갔습니다.

둘은 신나서 “하루 종일 재미있게 수영하며 놀자!” 했습니다.

그런데 조금 수영하다가 힘이 빠져서 밥을 먹고 쉬었습니다.

조금 쉬다가, 한 사람은

“더 쉬다가 조금 이따 수영하고 싶으면 또 하면 돼.” 했고,

다른 한 사람은

“이따가는 못 해. 집에 돌아갈 시간도 계산해야지.

저녁도 먹어야 하고.” 하며 또 수영을 했습니다.

결국 계속 쉰 사람은 시간이 지나니 상황이 바뀌어서

더 이상 수영을 못 하고 끝났습니다.

다음에 또 오자고 했으나, 생활지로 돌아가니 또 상황이 바뀌어
그해 여름은 끝나고 말았습니다.

- ◆ 여러분 각자 자신을 돌아봐요.

시동이 걸리고 열났을 때 해야 되는데,
그때 이유 대고 안 하다가 ‘안 된 일들’ 이 많습니다.

그 일이 나중에 또 해결까요?

그런 때는 ‘주기적’ 으로 오는데, ‘쉽게’ 는 안 옵니다.
고로 <그 때가 왔을 때> 꼭 해야 됩니다.

- ◆ 전도도, 관리도 <할 때> ‘안 한 자’ 는 기회가 끝났습니다.

마치 <젊었을 때 아기 낳을 기회>를 놓치면 힘들듯,
전도도, 관리도 그러합니다.

- ◆ <하나님의 백보좌 상징 작품>인 ‘월명동 야심작’ 도
다섯 번이나 무너졌지만 역경을 딛고 일어나
<할 때> 했기에 완성한 것입니다.

그때 못 했으면, 지금도 못 했을 것입니다.

- ◆ <할 때 하라>는 말을 좀 더 속 시원하게 ‘비유’ 를 들어 말한다면,
아기가 나올 때 힘을 주고 낳아야지
반쯤 낳다가 힘들고 고통스러워 죽겠다고
하루 쉬었다 낳으면 되겠습니까?

그러면 아기는 죽습니다.

- ◆ 동물의 왕국을 보니, 어미 말이 막 새끼를 낳았습니다.
그런데 사자가 힘 안 들이고 쉽게 잡아먹으려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.

사자는 힘이 좋고 발톱이 세니
지금 태어나고 있는 새끼를 잡아먹으려 하지 말고
체통 있게 ‘다 큰 것’ 을 잡아먹으면 되는데,
비열하게 ‘새끼’ 를 잡아먹으려 했습니다.

어미 말은 그것을 보고,
“너 이리 와서 잡아먹어 봐.” 하면서 좀 피해 주는 척하다가
그 ‘힘센 발’ 로 확 차 버리니,
사자가 제대로 맞고 쪽 뺨어 버렸습니다.

그때! ‘사자가 다시 일어나 공격하기 전’ 에
어미 말이 사자를 죽이고 자신과 새끼를 지켰습니다.

그리고 자기 새끼를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.
할 때 하니, 새끼를 지켰습니다.

- ◆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, 인생을 살 때도 그렇습니다.
모두 ‘할 때’ 해야 됩니다.

<할 때 꼭 하는 것>은 사실 지치고 힘든 일입니다.
그러나 그때! ‘몸부림의 걸작’ 이 탄생되고 창조됩니다.

<말씀 마무리>

◎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.

◆ 하나님도 성령님과 성자와 함께

인류에게 ‘종교 역사, 구원역사’를 시작하시고,
〈할 때〉쪽 하시며 6000년 동안 역사를 펴 오셨습니다.

사탄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막고,

사람들이 불신하고 막았어도

〈할 때〉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쪽 역사를 펴 오셨습니다.

그리함으로 〈때〉에 따라 역사가 진행되었습니다.

◆ 〈섭리역사〉도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.

환난 · 핍박 · 억울함이 닳았습니다.

그러나 〈할 때〉 하여 ‘휴거 역사를 이룩하는 이때’

〈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발판〉이 되어 주고 역사를 이뤘습니다!

◆ 〈할 때 안 한 것〉은 시간이 지나고 나이 먹으면 못 하는 것이 많고,

〈젊어서 할 때 못 한 것〉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많습니다.

〈할 때 못 하고 지나간 것〉은 끝났고,

〈이제 남은 것〉만 하면서 가야 됩니다.

◆ 이 〈휴거 역사 황금기 때〉, 할 때 목숨 걸고 안 하고,

생각이 다른 데 쏠려 휴거의 발목을 잡는 행동만 하고,

세상에 쏠려 자기 갈 길만 가는 자들은

결국 잘되지도 않고,

휴거도 제대로 못 이뤄 뒤처져서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됩니다.

◆ 신앙의 모든 일들도, 휴거 차원을 높이는 것도,

회개도, 전도도, 관리도, 감사도, 하늘 사랑도

모두 <할 때 해야> 됩니다.

그래야 ‘때의 운세’를 타고 ‘감각’을 잃지 않고
자기 꿈을 이루고, 하나님과 주의 계획도 이루고,
주와 함께 영도 육도 잔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.

◆ <화목>도 할 때 해야 됩니다.

하나님이 방향을 주시며 성령과 함께 ‘대화의 장’을 열어 주실 때
그쪽으로 ‘길’이 나고, 그쪽으로 ‘역사’가 일어나고,
그쪽으로 ‘축복’이 열립니다.

삼위일체는 ‘말씀’하시고, ‘그 말씀의 길’을 따라서
절대적으로 도우시고 함께하며 역사하십니다.

- ◆ 대화도 한 번 해 보고 잘 안 됐다 하고 끝내지 말고,
삼위와 주와 함께 ‘화목의 길’을 따라서 또 해 봐요.

<할 때 해야> ‘이상적’이고, ‘큰 역사’가 일어납니다.

◆ 이때 하늘 방향에 따라서

자꾸 대화하고 뭉친 것들을 풀면서 <할 때 하면>
그동안 묶였던 것들이 풀려 소원을 이루게 되고,
자기 마음도 자유롭고 기쁘게 되어 더 힘 있게 행하게 되고,
교회도 부흥하여 생명의 역사,
휴거 차원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.

◆ <바늘>은 섬세하지요? 꿰매 주지요? 묶어 주지요?

이와 같이 교역자들과 지도자들은 섬세하게 하면서,

교인 전체를 묶어 주고 께매 주고,
섬리인들끼리도 서로 묶어 주고 께매 주고,
가정에서도 서로 묶어 주고 께매 주면서
주 안에서 ‘화목과 사랑’이 충만하게하기를 축원합니다.

- ◆ 각자 자기 생활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있습니다.
잘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.

이럴 때는 〈섬세하게 하는 것〉과 〈할 때 하는 것〉이 문제의 답이며,
이로 인해 의문을 파헤쳐 알게 됩니다.

- ◆ 〈말씀〉이 ‘금은보화’입니다.
말씀대로 행하면 ‘금은보화를 얻듯’ 얻게 됩니다.

- ◆ 〈말씀〉이 ‘좌우에 날 선 예리한 검’입니다.
그만큼 세밀하고 정교하며 예리합니다.

고로 〈말씀〉은 ‘혼과 영, 생각과 골수’까지 찢어서 쪼개고,
‘마음과 생각’을 판단합니다.

- ◆ 섬세하게 해라. 할 때 해라. 묶어 주고 께매 줘라.

이 말씀대로 하면 각자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되고,
하나님의 계획도 이루게 됩니다!

◎ 말씀 마쳤습니다.